

MOVE

MOVE
BY STORY
VOL. 01

20121210

당신을 흔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무브
스토리

이야기
나무

K2
D2

INDEX

- COVER STORY** 오늘도 무브하세요!
-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
- PEOPLE** 손여사 손님 - 윤종신의 음악과 여행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한 알의 모래 속에 담긴 우주
- MUSE** 창조성을 깨우는 뮤즈 다이어리 사용법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01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발행일 2012년 12월 10일

발행인 김상아

이야기술사(storyteller) 바람, 나비, 땅
이야기화술사(designer) 김광혁(R2D2)
일러스트(illustrator) 몽돌
사진촬영(photographer) 바람, 연두, 바다, 포토그래퍼 시원, 건축가 최윤석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7321 디자인 www.7321design.com

오늘도 무브하세요!

이야기술사(storyteller) 나비 — nabi@bombaram.net

당신의 첫 번째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동네를 떠나 처음으로 시도했던 심부름,
정든 집 두고 한 첫 번째 이사,
첫 배낭 여행,
이야기는 움직임이고,
움직임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귀찮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야기를 기억해 본다면 그 움직임은 분명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곤 했을 겁니다.

MOVE by STORY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적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모든 운동에너지는 소멸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것에 유일하게 반하는 것이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장소, 대상을 찾아 움직입니다.

스페인과 파리 곳곳을 오가며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던 피카소,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도 평생을 여행하며 작품 활동을 했고, 환경운동가이자 화가인 훈데르트 바서는 심지어 태평양을 향해하던 배의 갑판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작품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적 에너지는 예술가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 혹은 영감을 주는 대상이 예술가라는 통로를 통해 발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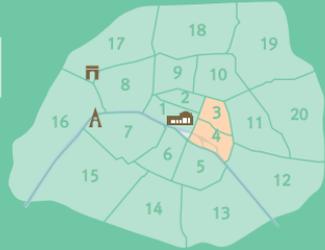
지금 스스로 멈춰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창조적 에너지를 찾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도해 보세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힘이 발산되는 지점을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항상 두근두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무브하세요.

move with MOVE by STORY

손미나의 여행 사전 예술과 영감의 도시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



이야기술사(storyteller) 명 - ddang@bombaram.net / 일러스트(illustration) 몽돌 - mongdol@bombaram.net

우리는 일상에 묶여 쉽게 떠나지 못하고, 실상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제대로' 여행하는 법을 몰라 아쉬움만 안고 돌아올 때가 많다. 여행을 통해 느끼는 진정한 감정의 잔상을 얻고 싶다면,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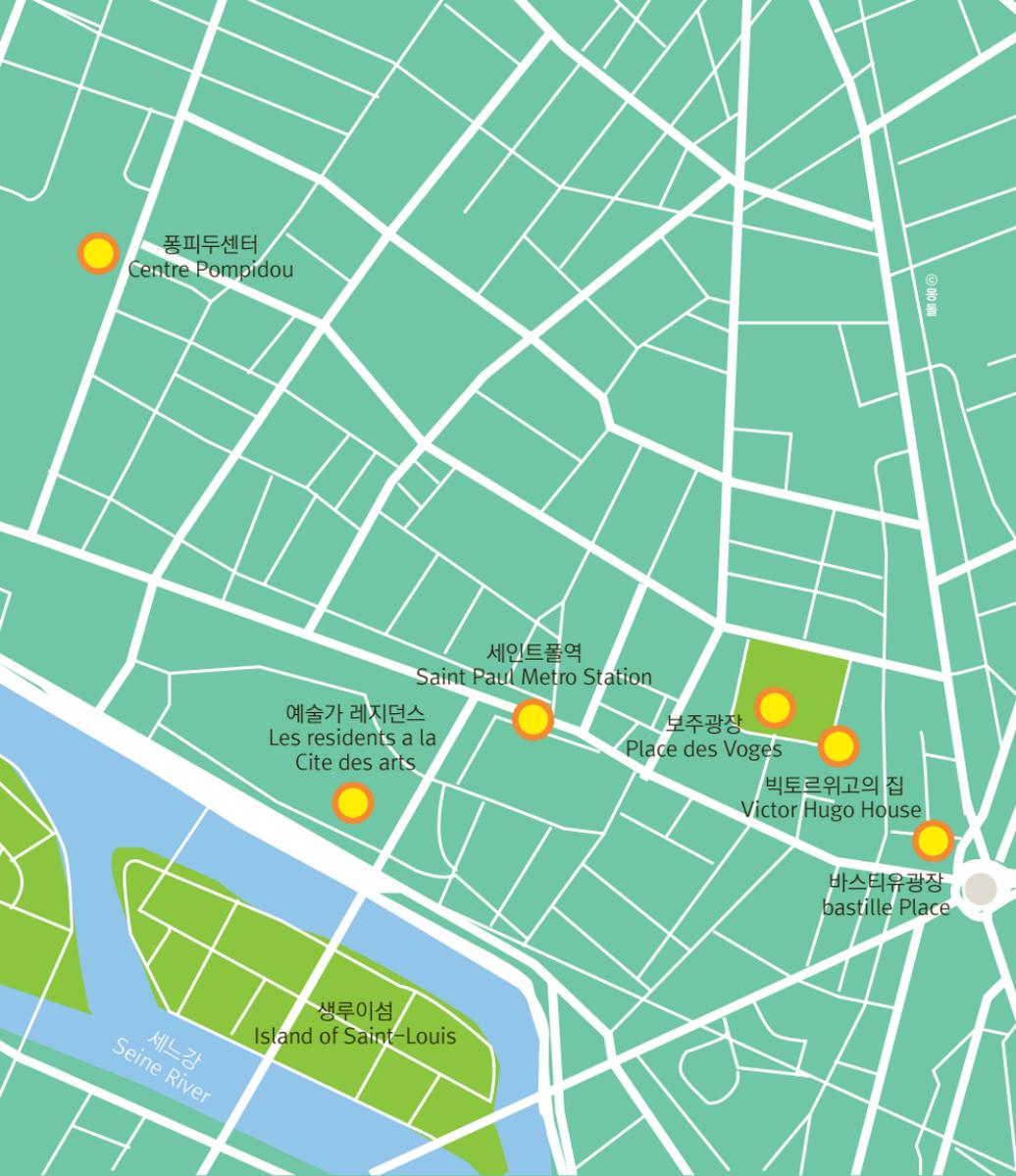
<손미나의 여행사전>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당신의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한껏 깨워줄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다. 1950년, 파리를 사랑했던 작가 에니스트 허밍웨이가 어느 인터뷰에서 파리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아직도 파리에 다녀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군요.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행운이 따라주어서
젊은 시절 한 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어딜 가든 늘 당신 곁에 머무를 거라고.
바로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특별한 축제가 될 마레지구-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스토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매달 10, 20, 30일마다 만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튠즈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팟빵(<http://www.podbbang.com/>)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 - 파리 3, 4지구에 위치(세느강 북쪽). 메트로로 찾아간다면 1호선 st. Paul역에서 내리면 된다.

마레의 매력포인트 1. 철학 카페

런던에는 한 집 건너 맥주를 파는 펍이 있고, 파리에에는 한 집 건너 카페가 있다.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카페 중에 매력적인 카페를 하나 소개한다.

파리 마레지구 바스티유 광장에 있는 <카페데파르Café de Phares>는 특별하다. 최초의 철학 카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철학 카페를 보통 '카페필로'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철학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취지로 곳곳에 카페필로가 있다. 평소에는 일반 카페와 다를 게 없지만, 일요일이 되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서 직업과 상관없이 삶과 철학에 대해 논한다. 프랑스어를 모르더라도 그들의 삶과 철학에 대한 진지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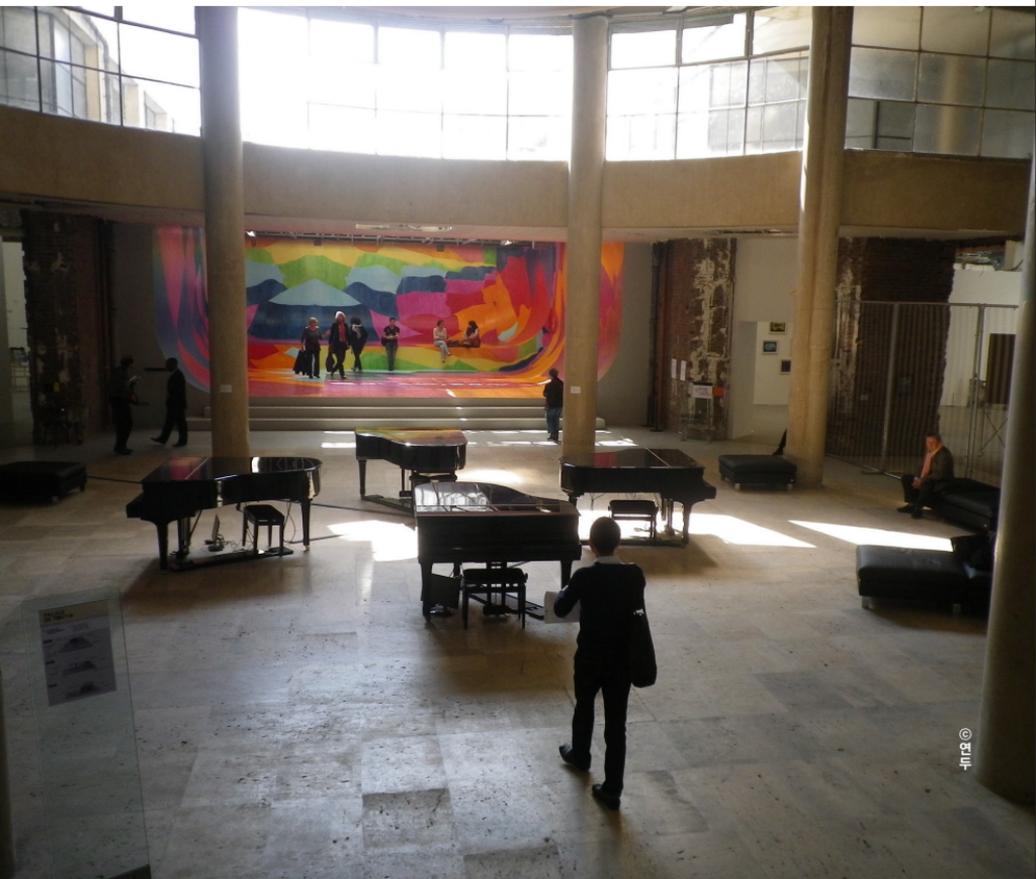
마레의 매력포인트 2. 예술가 레지던스 Les residents a la Cite des arts

역사가 오래된 마레지구에는 유럽의 중세건축물이 즐비해 있어 더욱 깊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예술적 낭만에 흠뻑 취해 마레지구를 거닐다 보면 뜬금없이 우리나라 주공아파트(?) 같은 건물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가 막 지은 건물 같지만 사실 이곳은 <시테 인터네셔널 데자르 cite internationale des arts>로, 세계 각국에서 온 약 300여 명의 예술가가 먹고 자고 작업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예술가 4~5명도 이 곳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사람당 약 7평 남짓한 공간 속 그들의 예술적 영감과 열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만큼 현대 예술가들의 열정이 담긴 곳으로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마레의 매력포인트 3. 보보(보헤미안 부르주아)

마레에 가면 '보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보는 '보헤미안 부르주아'의 줄임말로 부르주아 계층이면서 보헤미안적인 예술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미국인 기자 데이비드 부룩스가 쓴 <천국에 사는 보보스 Bobos in paradise>에 따르면, 보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주아적 야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 경제적 풍요, 특권意識과 함께 보헤미안적 방랑과 저항, 창조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60년대 히피와 80년대 여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 '자유로운 영혼의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마냥 눈살을 찌푸릴 필요는 없다. 보보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절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 따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일에 애매이기보다 삶의 균형과 여가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파리의 극장, 미술관 디렉터, 미학, 평론가 등 예술적 분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마레지구에 살고 있는 보보들과 눈인사를 해보자. 눈빛만으로도 당신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마레의 매력포인트 4. 폼피두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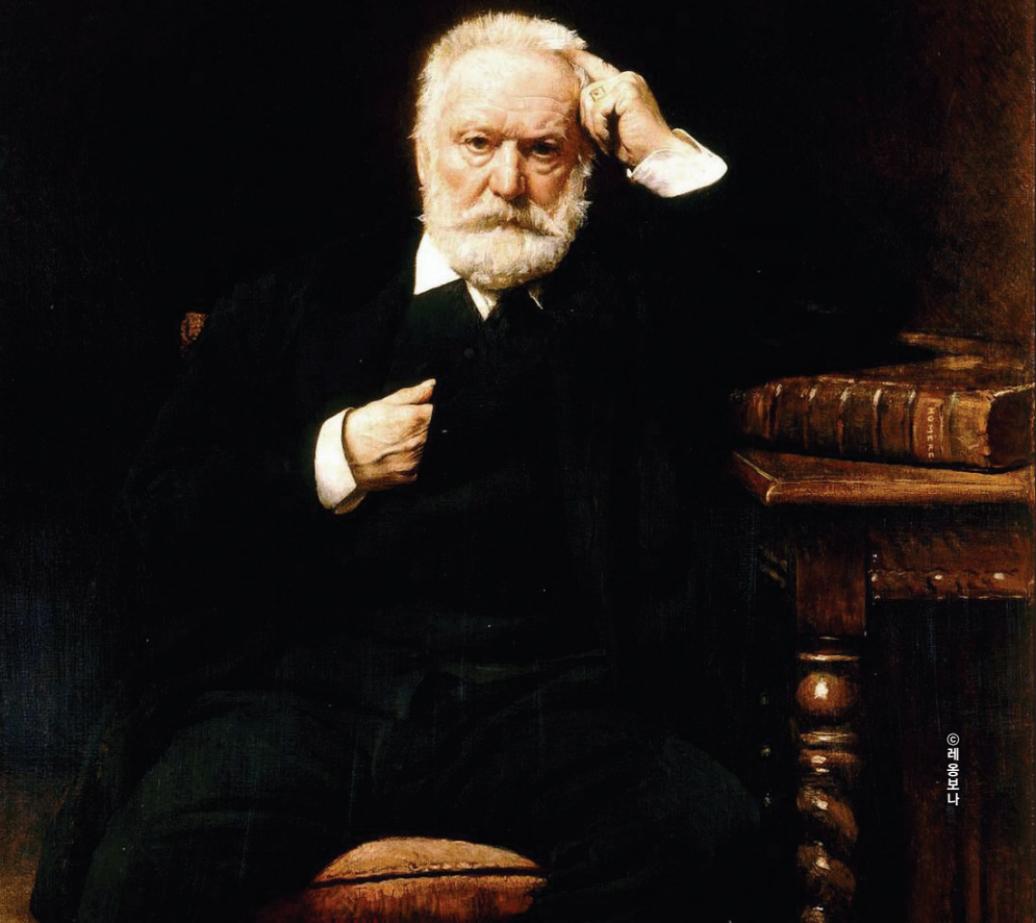
파리 여행자는 폼피두 센터를 보기 위해 마레에 오는 경우가 많다. 1977년에 완성된 폼피두 센터는 조르 지우 폼피두 대통령의 이름을 땀으며, 대중 예술을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폼피두 센터는 내부 콘텐츠보다 건축 자체가 유명한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설비들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아직도 공사중인 건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술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다양한 색채로 사워된 폼피두 센터를 잘 들여다 보면 파랑색은 환기관, 노란색은 전기관, 초록색은 수도관, 건물 정면의 빨간색은 에스컬레이터임을 알 수 있다. 늘 다양한 미술전시가 열리며, 센터 안에 카페에 가면 유명한 예술가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매일매일 하나의 예술 페스티벌이 열리는 폼피두 센터는 마레지구의 필수 코스다.

마레의 매력포인트 5. 빅토르 위고

〈노트르담의 꼽추〉, 〈레미제라블〉을 지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1862년 출간된 〈레미제라블〉은 글을 아는 프랑스인이라면 모두가 읽을 정도로 프랑스인과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작이다. 빅토르 위고와 마레지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로 〈레미제라블〉을 완성한 곳이 마레지구인 것.

마레지구를 사랑한 그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위대한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다. 빅토르 위고는 시나 소설만 잘 쓴 것이 아니라 화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데생을 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재능도 많고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만인의 연인으로 평생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보주광장 6번지에 위치한 빅토르 위고의 생가에 방문해 그의 낭만적인 영혼에 흠뻑 취해보자.





낯선 이에게 친절하라, 그들은 천사일지 모르니 프랑스 파리,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

“노틀담 성당에서 강을 건너 길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자 길가에서 우리는 곧 역사적 인 간판과 마주할 수 있었다. 살짝 칠이 벗겨진 청록색 외양과 벽에 걸린 셰익스피어 초상이 단숨에 나를 20세기 초 유럽으로 끌어당겼다. ... '낯선 사람을 병대하지 말라,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지 모르므로' 서점 전면에 걸려있는 글이 가슴에 닿는다.”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146p 中 (백창화·김병록 지음 / 이야기나무 / 15,000원)

마레지구 남단 쪽 강 건너 바로 노트르담 성당이 있다. 그곳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이 발길을 잡는다. 영화 <비포 선셋>에 남녀주인공이 9년만에 조우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오래된 서적 속에 당신이 찾는 '그 것'이 이 서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손여사 손님

상상으로 여행하는 남자 싱어송라이터 윤종신

이야기술사(storyteller) 땅 - ddang@bombaram.net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첫 회에 특별한 게스트가 방문했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와도 인연이 깊은 싱어송라이터 윤종신 씨다. 2012 월간 윤종신 5월호 '도착'이란 곡의 뮤직비디오 촬영 차 파리에 갔던 그는 그 당시 파리에 거주하던 손미나 작가 덕분에 무사하(?)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었다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마레지구에만 주야장천 머무르다 간 손여사의 손님, 윤종신 씨를 만나보자.

Q. 2012년 봄, 처음 파리에 왔으면서 정작 왜 그렇게 마레지구를 벗어나기 싫어했나요?

마레가 마냥 좋았어요. 제가 뉴욕을 5번이나 가봤음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파리에 왔으니 에펠탑도 가봐야 하는데, 그냥 마레가 아주 좋더라고요. 거리를 걷고, 손미나 씨가 안내해준 식당의 음식 맛도 좋았고. 근데 한국 와서 주변 사람들이 파리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닌데 재미있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불친절한 사람도 많다는데 저는 못 느꼈죠. 마레는 약간 흥대 같은 기질이 있어요. 다녀온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아련한 생각이 드네요.

Q. 마레지구에 있던 철학카페가 인상적이었다고요.

전 떠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카페는 신선했어요. 그곳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 관대했어요. 그리고 철학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다는 게 놀라웠죠. 인생에 관련된 얘기들을 떠들기보다 열변을 토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카페에서 제대로 된 파리문화를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Q. 〈월간 윤종신〉, 매달 작곡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텐데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나요?

〈월간 윤종신〉에 대해 의무감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단히 원대한 계획을 갖고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냥 해야 돼요. 사실 음악 하는 사람이 한 달 내내 작업 안 하거든요. 너무 역작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막연한 자유보다는 자기만의 규칙성으로 꾸준히 해나갔던 것 같아요.



© 바다

Q. 여행이 작곡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작곡을 할 때는 장비가 완벽히 세팅된 방에 앉아 있어야 곡이 나오니까요. 대신 상상으로 여행을 하죠. 곡은 상상력의 대가예요. 귀퉁한 작업실에서 곡을 쓰고 상상하고, 그저 여행을 동경하죠. 그런데 마레를 다녀와서 한 번 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여행갈 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마흔이 넘어 쉽지 않지만, 아내에게도 무계획적인 여행을 가지고 한 번 씩 그래요.

Q. 유학을 가신 적도 없고 유럽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서가 담긴 곡은 어떻게 쓰나요?

기본적으로 예술가는 사기꾼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듯해'라는 상상력이 원동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파리를 유학했다면 전 동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럽의 정서가 담긴 곡은 안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에 데뷔했거든요. 어디를 떠나서 유학했던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전 홍그라운드에서만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방인으로 살아본 사람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 데요. 항상 '동경'의 힘으로 작곡하고요. 상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희열, 김연우, 윤종신 중에 외모 순위를 매긴다면?'이라는 엉뚱한 질문에, "같이 감상도 안 하는 사람들. 비교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치 있는 답변으로 화답했다. 윤종신 씨와의 대화는 <소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모래 송민선 한 알의 모래 속에 담긴 우주

이야기술사(storyteller) 바람 - baram@bombaram.net

1990년생. 제주 출신. 23살. 서울대 시각디자인과 4학년 휴학 중, 현재 문화공간 숭도 연구원. 이것은 송민선 씨의 드러난 프로필이다. 그러나 올 초부터 함께했던 토요일 아침의 독서토론 모임, 숭도 책벌레클럽의 믿음직한 매니저로, 백석 시인의 작품을 정직한 그림으로 표현해낸 디자이너로 몇 개월 동안 민선씨를 지켜보면서 그녀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결 더 깊고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다. 유명하지 않아도, 나이가 어려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써가는 사람, 그 공은 심지에 살짝 불을 당겨주면 활활 타오를 것 같은 사람, 민선씨는 그런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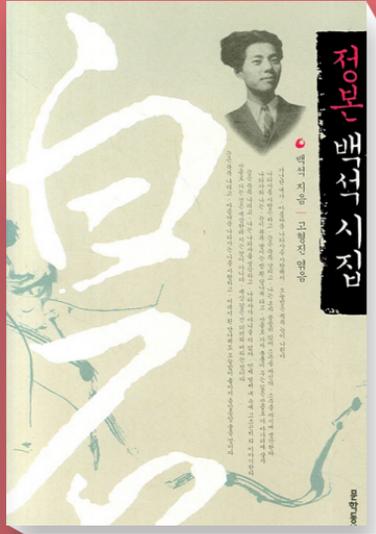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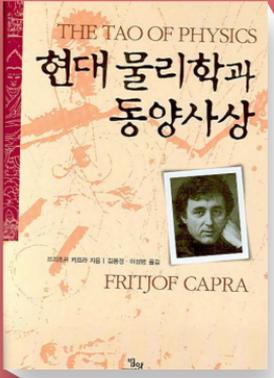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의 이야기가 응축된 이름을 짓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민선씨는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 '순수의 전조 Auguries of Innocence' 첫 구절에서 자신의 새 이름, '모래'를 발견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And Eternity in an hour.	순간 속에 영원을 담아라.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도매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디자이너라는 그릇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지 갈망이 점점 커졌다."는 민선씨는 물리학과 인문학을 통해 디자인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접점을 발견했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옳다고 생각하는 진심을 옹골찬 디자인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언젠가 당신이 예사롭지 않은 작품으로 한 알의 '모래'를 만나면 송민선 씨를 기억하시길!

오늘도 무브하세요!
모래가 제안하는 무브꺼리

5



01 날씨 안 좋은 날의 서귀포
<주상절리>에서 수평선 보기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묘연한 수평선에서 비현실을 보게 된다.

02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정본 백석시집>
특히 '연자간'을 읽으면 위안이 된다. 백석은 귀신까지도
포용하는구나 싶어서.

03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다른 것에서 넓은 점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04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카페 림보>
당신이 아직 34살이 되지 않았다면 더욱 더 당신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다.

05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짚짚이 인문학 책 읽기
머리를 말리면서, 지하철에서 되는 대로 아무 데나 펼쳐서
그 순간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읽는다.



창조성을 깨우는 뮤즈 다이어리 사용법

이야기술사(storyteller) 땡
- ddang@bombaram.net

똑같은 일상, 무료한 삶.....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친 우리의 가슴 속엔 항상 '새로움'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 일상 밖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다. 일상의 툇니바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인정할 수 없기에 여전히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갈증을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내 안에 잠재된 창조적 열정 - '뮤즈Muse'를 살살 흔들어 깨워기만 하면 된다.

예술가와 크리에이터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를 '뮤즈Muse'라고 하는데, 뮤즈는 예술적 영감이 필요한 특정 이에게만 등장하지 않는다. 옆집 아저씨, 이웃집 언니,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구에게나 잠재된 영감의 신이기 때문이다. 뮤즈는 일상 속에서 내 안의 창조성을 깨워주어,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 뮤즈는 나를 잘 알게 될 때 만날 수,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매일매일의 기록을 통해 가능하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는 순간 - 당신의 뮤즈가 눈을 뜬다.

기록 3 — 오늘의 감정을 담다

MOOD CHART

우리의 하루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기쁨? 설렘? 실망? 슬픔? 가슴 속에 일고 있는 감정의 무게를 재보자. 하루에 한 번 자신과 나누는 짧은 시간, 속 깊은 대화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무드 차트는 당신의 감정 추적이 되어 줄 것이다.



추천 Action : <손미나의 여행 팟캐스트>를 들으며 무드 차트 그리기

“
 누구에게나 인생은 짧은 여행과 같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 보낼 수 없는 매 순간을,
 가슴 속 소중한 떨림을 이곳에 담아 보십시오.
 일상의 소소한 기록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
 - 손미나 -



손미나의 뮤즈 다이어리는 7321스토어(www.7321store.com)와 텐바이텐(www.10x10.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연필크, 그래픽 2종, 소비자가 14,000원.

이야기나무 책 소개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김병록 지음 | 352쪽 | 15,000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간행물 수상작
충북 괴산 미루마을에 책마을을 일구는 어린이 도서관장
부부가 지도에도 없는 유럽의 책공간을 찾아 떠난
여행과 책에 관한 기록
북 러버, 북 원더러, 북 헌터를 위한 애독서!



『PRIDE 현대카드가 일하는 방식 50』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 · 현대커머셜 지음 | 328쪽 | 13,000원

경제경영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현대카드와 정태영 사장이 직접 밝힌 남다른 성공의 비밀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꾼 10년의 노하우
경영자, 직장인, 기업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들의 필독서!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세상이 내 집이다, 모두가 내 친구다!
김은지 김종현 지음 | 280쪽 | 15,000원

카우치서핑 국내 공식 첫 가이드 북(www.couchsurfing.org)
인류에 대한 무한한 신뢰fmf 바탕으로 조건 없이
집을 공유하고, 명함보다 서로의 스토리를 교환하는
신인류의 혁신적인 여행법, 카우치서핑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



『이야기 테라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힐링 스토리 24
이시스 지음 이장섭 그림 | 380쪽 | 17,000원

이야기가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6가지 테마의 24가지 힐링스토리.